

신체제 시기 최재서의 '국민문학론'

이혜진

도쿄외국어대학 종합국제학연구원 연구원,
한국의대 국문과 박사과정, 한국근대문학 전공
alusa@hanmail.net

- I. '친일문학'이라는 의장(意匠)
- II. 경성제대 영문학과와 아카데미즘과 최재서
- III. 의식과 원리의 전환: 방법으로서의 '국민문학'
- IV.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의 화법
- V. '국민문학'의 보편성과 '조선적인 것'의 특수성
- VI. 파국의 시대와 새로운 '역사의 천사'

이 학술연구는 2009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AKS-2009-R 17). 이 논문의 일부는 '한일문학교류 국제워크숍'(2010년 7월 16일, 일본 武蔵大学)에서 발표한 것이다.

I. ‘친일문학’이라는 의장(意匠)

지난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었다. 한국근대문학사에 있어 이른바 ‘친일문학’은 신문학 등장 이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식민지 지배의 종언이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한 부채감이 빚어낸 ‘청산’의 문제가 여전히 음영을 드리우고 있는 현재, ‘친일문인’이라는 타이틀로 사전에 등재된 이후 발생할 모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각각의 항목을 차지한 문인들의 행보가 모두 동일할 리야 없겠지만, 그것이 ‘친일’이라는 일괄적인 수사로 사전에 등재된다는 하나의 ‘사건’은 ‘친일 청산’이라는 편리한 의장으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식민의 기억과 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억압된 트라우마로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들은 한국근대문학사의 한 영역으로서의 친일문학을 민족주의라는 독점적 해석의 권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견지에서 사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국근대문학 전반은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친일문학론으로 나아갈 불길한 가능성을 항시 안고 있었으며, 1930년대 후반기에 그 계기가 주어졌”¹⁾이라는 역사적 함목적성을 보려는 견해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저항하는 분열된 주체를 설정함으로써 협력과 저항이 ‘민족’을 중심으로 이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 속에서 그리고 한 작품 속에서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지고 있”²⁾다는 견해, 그리고 친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어떤 결론이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일 못지않게, ‘현상들’을 역사의 ‘겹눈’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일”³⁾이 절실하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식민주의 자체의 모순이 양가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근대’ 그 자체를 동시에 초극(超克)해야만 했던 당대 조선 문인들의 과제로 이어지는 식민지적 정체성의 문제를 역사적 현상으로서 좀 더 섬세한 눈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류보선, 「친일문학론의 계몽적 담론구조」, 한국근대문학회 편, 『한국문학과 계몽담론』 (소명출판, 1999), 81쪽.

2)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21쪽.

3)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소명출판, 2005), 8쪽.

발자크(Balzac)의 리얼리즘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세계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이해방식이라는 형식으로서 도출된 것이었다. 이러한 발자크의 이해방식을 따르는 일이란 필경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일이란 그 세계에 대한 작가의 통렬한 비판의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교훈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친일문학’을 논하는 일이란 한 시대의 통념으로 어떤 주의나 사상의 논리적 구조를 맹신한 나머지 “역사의 견해만 보고 역사를 보고 있다고 믿는 태도”⁴⁾가 아니라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근대비평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했던 최재서의 학문적 실천의 행보를 통해 ‘신체제’ 시기에 이르러 그가 ‘국민문학’의 이론까지 도달했던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 ‘신체제’에 직면하여 어떤 식으로 발화되었으며 그것이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를 추적해볼 것이다. 일제 말 ‘혁신적’으로 등장한 ‘국민문학’은 ‘내선일체’에 따른 ‘새로운 국민’을 창출하는 과제에서 제출된 것인 만큼 ‘친일문학’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쟁이 확대되면서 문단 매체가 통폐합되는 가운데 일본 측의 요구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었는지를 간파했던 최재서의 화법을 ‘친일’로 일괄 규정해버리기에선 어딘가 석연치 않은 지점이 발견된다. 즉, 출판된 미디어가 검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발화될 수 있었던 시대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추적해볼 때 그것이 협력의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II. 경성제대 영문학과와 아카데미즘과 최재서

일본이 도쿄, 교토, 도호쿠, 규슈, 홋카이도에 이어 여섯 번째 제국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한 때는 1926년(예과 1924년)이었다. 경성제대의 학과목 구성이나 학문적 수준은 일본 본국의 제국대학에 준하는 정도였으

4) 고바야시 히데오 저, 유은경 옮김, 『역사와 문학』, 『고바야시 히데오 평론집: 문학이란 무엇인가』(소화, 2003), 210쪽.

나, 일본에서는 문부대신이 감독권을 갖는 것에 비해 경성제대는 총독이 감독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제국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의 이데올로기를 명확히 표방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이나 일본인이냐를 문제삼지 못할”⁵⁾ 정도로 최고의 엘리트로 간주되었던 경성제대의 조선인 학생들은 구체적인 현실 면에서는 '내선일체'의 '황국신민'이라는 표어가 무색할 만큼 차별이 존재했다.⁶⁾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찢어진 망토를 걸치고 몰려다니면서 “마실 줄도 모르는 술을 퍼마시고 나중에는 '박사나 대신이냐'는 노래를 소리쳐 부르거나”⁷⁾ “파출소 앞에서 일본인 경찰관의 발에 오줌을 누는”⁸⁾ 식의 행동을 하는 등 이른바 '방(蠻)걸리'로 불리는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니기도 했다.⁹⁾ 식민지하의 조선문단을 그린 다니카 히데미쓰(田中英光)의 소설 『취한 배(酔いどれ船)』의 첫 장면에서 고키치(享吉)가 조선은행 앞 광장 분수대 위에 올라 바지를 내리고 술주정을 하는 대목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다른 한편,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 다카키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는 경성제대가 “대학이라는 하나의 치외법권적인 영역”¹⁰⁾임을 강조했던 바, 식민지 이데올로기의 최상위에 위치한 경성제대가 학문 연구를 본질로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행위이며 그것은 정신의 독립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일찍이 최재서가 경성제대 영문학과에서 수학했던 일련의 과정들은 최재서 연구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재서의 초기 비평 형식이 영문학 연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한국문학 최초의 평론집 『문학과 지성』(1938)이 그 산물이라는 점,

5) 유진오, 『젊은 날의 자화상』(박영문고, 1976), 27쪽.

6) 총독부는 조선인의 입학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의도에서 학생선발과정에서부터 차별 방침을 고수했다. 일본인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예과시험의 불공정성은, 당시 사회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일 조건에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조롱”이라고 평가되었다. 「朝鮮大學豫科의 入學試驗에 대하여, 教育家의 奮起를 促함」, 《동아일보》, 1924년 1월 19일자. 또한 조선인 지원자에게는 각 경찰서 고등계에서 철저한 사상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은 “기괴한 教警一致”라고 비판했다. 「朝大豫科의 기괴한 教警一致」, 《동아일보》, 1924년 3월 14일자.

7) 유진오, 「片片野話」, 《동아일보》, 1974년 3월 20일자.

8) 강성태, 「경성제국대학」, 《중앙일보》, 1971년 5월 15일자.

9) 이충우, 『경성제국대학』(다락원, 1980), 77-78쪽.

10) 高木市之助, 『國文學十五年』(岩波書店, 1967), 138쪽. 이하 일본어 인용문은 모두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그가 《인문평론》과 《국민문학》을 주관할 수 있었던 것도 경성제대 법문학부 아카데미즘의 역량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성제대 영문학과 주임교수이자 최재서의 스승인 사토 기요시(佐藤清)는 당시 경성제대의 조선인 학생들의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경성제대에는 매우 엄격히 선발된 소수의 입학자로 성립된 예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문학부에 오는 학생은 소수였음에도 영문과에 모인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수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조선인 학생 중 우수한 자들이 모였던 것은 제대(帝大)라는 이름에 끌렸다가보다는 외국문학에 대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어떤 것이 제대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20년간 조선 학생과 교제하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외국문학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지를 알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¹¹⁾

한국 최초의 대학인 경성제국대학 영문학과는 수재들의 집합소였고, 이들에게 영문학은 식민지라는 막다른 공간에서 '자국문학을 위한 외국문학' 연구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임화는 조선 근대문학의 과정을 '이식문학사'로 규정했던바, 경성제대 영문학과는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서구의 근대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풍토가 될 수 있었다. 즉, 일종의 성역(asylum)이었던 경성제대에서의 영문학 연구란 식민지적 존재 조건이라는 한계상황에서 자신들의 이론적 지평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수단일 수 있었다. 그들에게 외국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서구의 인권사상이나 합리적 사고, 자유주의 사상 및 문화의 자율성을 학습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민족해방이나 독립사상을 경험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경성제대에 진학한 조선인 학생의 대다수가 영문학을 전공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 따라서 최재서가 경성제대에서 영국 낭만주의를 연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8세기 노예무역과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로 세계 제일의 산업자본주의 국가가 된 영국이 잔혹한 정치적 억압의 경찰국가로 치닫자 여기에 맞선 부류들이 낭만주의 문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부여한 창조적 상상력이 단순한 현실 도피를 넘어 하나의 정치적 행동으로서 사회를 변혁하고자 했던 암묵적인 힘이었음을 반증한다. 이런 의미에서 1930년대 영국에서 영문학은 교화력을 지닌 하나의 수단이자 사회 형성의

11) 佐藤清, 「京城帝大文科傳統と學風」, 『佐藤清全集(3)』(詩聲社, 1964), 259쪽.

정신적 본질로 간주되었다.

당시 조선의 영문학 연구자들은 1920년대 엘리엇(T. S. Eliot)의 모더니즘과 다음 세대인 오든(W. H. Auden), 데이 루이스(C. Day Lewis), 스펜더(Stephen Spender)—이들은 유럽의 파시즘에 반대하며 중도좌파의 성향을 지녔다¹²⁾—등의 혁신 문인들에 주목하면서 동시대 영문학을 수용하고 있었다. 최재서가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운동을 통해 민족적 자립을 꾀했던 예이츠(Yeats)론을 쓰고, 작가의 개성의 존재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회의적 몸짓으로서 주지주의로 나아간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영문학을 바탕으로 조선의 근대비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했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상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점은 사토 기요시의 학문적 정신과 연관시켜볼 때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사토 기요시는, 대학에서 외국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외국문학을 위한 외국문학이 아니라, 자국문학을 위한 외국문학”임을 자주 강조하면서 “문학이란 실천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 스스로 조선에서 문학운동의 어떤 국면에 관계하고 참여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때 그가 직접 언급한 영문학의 학문적 중심은 다음과 같다.

영문학,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저는 영문학의 가장 왕성한 시대, 곧 셰익스피어-밀턴 시대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발흥한 낭만주의 운동에 집중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텍스트에 따라, 즉 ‘연습(演習)’에 의해 작품의 문학정신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한편 문학비평의 역사를 그리스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비평의 원리와 방법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항상 일본문학, 동양문학과 비교하면서 또 그 비교를 통해 자기를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¹³⁾

사토 기요시와 최재서에게 ‘자국문학’이란 각각 일본문학과 조선문학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위한 실천 형식은 동일하게 “밀턴에서 시발하여 18세기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한 ‘자유’를 추구하는 문학의 흐름”¹⁴⁾ 위에 있었다. “일본의 외국문학 연구자들이 사조의 흐름을 좇는데 급해 이론이나 체계를 세우지 않고, 문학정신이나 시적 정신의 발전에

12) 김준환, 「1930년대 한국에서의 동시대 영국시 수용」, 『영어영문학』, 제53권 3호(2007), 443쪽.

13) 佐藤清, 「京城帝大文科傳統と學風」, 『佐藤清全集(3)』(詩聲社, 1964), 258쪽.

14) 佐藤清, 「英文学というもの」, 위의 책, 251쪽.

눈을 돌리지 않는 가운데”¹⁵⁾ 사토 기요시의 영문학적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시인적 열정’을 기반으로 문학을 살찌우고 있다는 최재서의 평가는 여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서구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완전히 일소된 1943년의 시점에서 최재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정신을 사토 기요시의 작품에 투사하면서 그것을 우회적으로 옹호했던 것이다.

이 점은 동일한 형태로 동시대 영문학을 연구한 조선 지식인들의 아일랜드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1930년 경성제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이효석의 논문이 아일랜드의 극작가 존 밀링턴 싱(John Millington Synge)의 작품세계였다는 점, 아오야마학원(靑山學園) 영문학과와 백석이 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선의 토착 언어 발굴에 힘썼다는 점, 최재서가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에 앞장선 에이즈, 윌리엄 브레이크(William Blake),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를 연구했다는 점, 유치진의 처녀작 「토막(土幕)」이 아일랜드의 극작가 손 오케이시(Sean O'Casey)의 영향하에 창작되었다는 점 등은 당시 지식인들이 조선의 상황을 ‘일본의 아일랜드’로 치환함으로써 모종의 구원을 모색하려 했다는 것으로 독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교토제대(京都帝大) 영문학과 교수였던 우에다 빈(上田敏)이 싱에 대한 강의를 한 바 있었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아일랜드 문학이 크게 환영받지 못한 채 기쿠치 칸(菊池寛)이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와 같은 소수의 문학청년에게만 관심이 국한되었다.¹⁶⁾ 그러나 일본과 조선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조선인 학생들이 아일랜드문학에 일시적으로 심취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를 조선의 상황과 중첩시키면서 종주국과 식민지라는 하나의 인식틀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최재서가 ‘신념’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민문학’을 새로운 비평원리로 선언할 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문학은 최악의 경우 쾌락의 노예였으며 최선의 경우 개성의 탐구 및 그 순화였다.”¹⁷⁾라면서 그동안 지녀왔던 자신의 견고한 입장을 포기한다. 그리고 ‘국민문학’ 시기의 최재서는

15) 최재서, 「詩人としての佐藤清先生: 『碧靈集』の出版を機として」, 『轉換期の朝鮮文學』(人文社, 1943), 254쪽.

16) 이에 대해서는, 川村湊, 「朝鮮近代批評の成立と蹉跌: 崔載瑞を中心」, 藤井省三(編), 『岩波講座: 『帝國』日本の學知 5, 東アジアの文學・言語空間』(岩波書店, 2006) 참고..

17) 최재서, 「國民文學의 要件」, 《국민문학》, 1941년 11월호, 40쪽.

일본문학의 지방문학으로 전락한 조선문학의 위치를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관계로 치환한다.¹⁸⁾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이 치환관계는 모든 이론과 사상을 포기하고 하나의 ‘국민문학’ 이론으로 수렴될 때조차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의 아포리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III. 방법으로서의 ‘국민문학’: 부정성에 머무른다는 것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 부문 중 문학이 정책적으로 관계화된 것은 비교적 나중의 일이었다. 문인 동원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1934년의 ‘신건설사 사건’은 항일세력으로서의 카프 문인들을 해산시키고 전향을 유도했다. 카프 사건 판결 직후 ‘준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조선에 전쟁 협력 문학이 요망됨에 따라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조선문예회’(1937.5.2)¹⁹⁾를 조직했는데, 이로써 문학이 일제의 관제조직하에 놓이게 될 징후를 보이게 된다. 이때 조선의 문인들이 ‘문단의 총의(總意)’를 명분으로 ‘자발적’으로 수행한 최초의 시국활동이 ‘황군위문문단사절단’을 통한 전선(戰線) 시찰(1939.4.15)이었다.²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전쟁문학에 대한 기대와 전시기 충후국민의 사상지도를 위해 탄생한 것이 ‘조선문인협회’(1939.10.21)²¹⁾였다.

《인문평론》에 따르면, 조선문인협회는 “문인 각자가 개인적 행동과 그 문장을 통하여 국책 수행에 기여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 기대되”²²⁾는

18) 참고로, 당시 경성제대 영문학과 연구실에는 아일랜드 문학과 스코틀랜드 문학의 도서 배치가 분리되어 있었다. 「研究室のなか」, 《경성제대영문학회회보》, 1929.12.25. 발행(창간호), 13쪽.

19) 「文藝研究に教化作歌や映畫も製作: 一流作家, 作曲, 音樂家らが朝鮮文藝會を創立」, 《大阪毎日新聞》, 1937년 4월 27일자; 「朝鮮文藝會가 조직되다」, 《조선일보》, 1937년 5월 2일자.

20)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혜진, 「전쟁과 문학: 총력전 하의 ‘전쟁문학’ 작법(作法)」,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편,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5집(2008) 참고.

21) 「朝鮮文人協會 今日發起人會 開催」, 《동아일보》, 1939년 10월 21일자.; 「文章報國へ 結束 競立つ半島文壇: 時も時大祭日に朝鮮文人協會誕生」, 《경성일보》, 1939년 10월 21일자.; 「朝鮮文人協會 第二回 發起人會」, 《동아일보》, 1939년 10월 23일자.; 「朝鮮文人協會 趣旨會規草案通過」, 《동아일보》, 1939년 10월 24일자.; 「朝鮮文人協會 今日盛大히 結成式 朝鮮文壇總動員으로, 會長은 李光洙씨로」, 《동아일보》, 1939년 10월 30일자.

22) 「朝鮮文人協會의 結成」, 《인문평론》, 1939년 12월호, 100쪽; 「朝鮮文人協會 結成」, 《문장》, 1939년 12월호, 202쪽; 「朝鮮文人協會 創立」, 《조광》, 1939년 12월호, 225-226쪽.

가운데 결성된 것인 만큼, 여기에는 조선 문인들의 조직적인 국책 수행의 임무가 전제되어 있었다. 식민지배하에서 정치적으로 의도된 문인 조직은 일제의 국책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문학’을 지향하기 위한 “조선문학사상에 새로운 출발”²³⁾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순수 문단 모임과 달리 “조선 문인의 거의 전체가 조선문인협회에 가입했다.”²⁴⁾ 《인문평론》은 일제에 의한 문인 조직 결성이 곧 시국에 따른 문인의 강제동원이라는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조선문학의 발전적 해소’라는 대의명분과 함께 조선문학의 향방에 대한 암시를 부기(附記)했다.

성명서나 회칙만 보아도 추측되는 일이지만 이 회의 특징으로서 내지인과 조선인이 문필에 종사하는 이상 다 입회케 된 점과 또 회 성립의 당초부터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가입될 것이 예상되었던 두 가지 점이다. 이것은 수백의 회를 종래의 모든 문단 단체와 구별하는 점으로 의미가 중대하다.²⁵⁾

이 글에는 “일치단결, 국민정신을 총동원하고 내선일체 전 능력을 발양하여 국책 수행에 협력함으로써 성전(聖戰) 궁극의 목적을 관철”²⁶⁾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산하에 문학을 위치시킴으로써 본격적인 국책 선전의 도구로 기능할 것이라는 예견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고도국방체제’를 표방한 전시체제에 이르러 “반도에 부동의 신념을 확립”²⁷⁾하기 위해 문인의 총후 후원을 구체화하는 ‘신선언’이 발표되자, 마침내 1940년 2월 10일 평양대회를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의 ‘전시동원문학’이 논의되었다.²⁸⁾ 이 행사를 시작으로 《문장》과 《인문평론》이 폐간되고 《국민문학》으로 통합²⁹⁾된 저간의 사정은 조선 문인의 운신의 폭이 크게 축소되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요컨대 ‘조선문인협회’의 결성 자체가 일제의 국책을 선전·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로 고안되었다는

23) 「朝鮮文人協會 創立」, 《조광》, 1939년 12월호, 225쪽.

24) 春園生(이광수), 「內鮮一體と朝鮮文學」, 《조선》, 1940년 3월호, 70쪽.

25) 「朝鮮文人協會의 結成」, 《인문평론》, 1939년 12월호, 100쪽.

26) 「朝鮮聯盟は今まで何をやつて來たか: 聯盟の歴史」, 《총동원》, 1939년 6월호, 66쪽.

27) 「臨戰下文人の 使命: 文協의 新宣言 內容」, 《매일신보》, 1941년 8월 27일자.

28) 평양대회의 강연 연사와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① 김동환, 「조선문인협회의 사명」, ② 정인섭, 「비상시국과 국민문학」, ③ 寺田瑛, 「신문과 소설」, ④ 유진오, 「조선문학과 용어문제」, ⑤ 이태준, 「소설과 시국」, ⑥ 이효석, 「題미정」, ⑦ 杉本長夫, 「시」, ⑧ 최정희, 「자화상」, ⑨ 모윤숙, 「시」, ⑩ 박영희, 「전지기행」, ⑪ 김문집, 「국체에 사는 자」. 「文學地方講演 처음 平壤大會를 열기로 朝鮮文人協會 主催」, 《동아일보》, 1940년 1월 29일자.

29) 「國民文學發會披露會」, 《매일신보》, 1941년 9월 8일자.

사실은 이것이 이후 조선 문인들이 도달해야 할 ‘국민문학’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였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들의 《국민문학》 행보는 이 조직이 먼저 고안·정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무렵 협회의 간부들은 문학 활동 이외에 ‘육군지원병훈련소’를 참관하거나 ‘총력운동’ 일환의 선전 글을 발표하는 등 조선인 동원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직역봉공(職域奉公)’을 자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국민총력조선연맹’(1940.10.16)이 결성되면서 ‘총후사상운동’이라는 보다 체계적인 ‘국민조직’ 동원으로 확대되었다. 뒤이어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이 패색의 도를 더해가자 ‘결전체제’를 외치며 문단의 재통합이 논의되었는데, 그 결과가 ‘조선문인보국회’(1943.4.17)이다.³⁰⁾ ‘조선문인보국회’는 “대동아전쟁의 결전단계에 돌입”하여 “반도 문인의 총력”으로 “결전하의 황도문학을 수립”³¹⁾한다는 극단적 분위기 속에서 일제 관헌이 직접 임원진에 참여하고 ‘내선’의 문인들이 통합된 규모로서 문인들을 더욱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산된 전력(戰力)을 하나의 종합적 전투병단에 집중시키”³²⁾는 ‘결전문학’의 확립이었다. 이로써 문인 조직은 ‘내선’의 구별 없이 총후 ‘사상보국’의 임무를 띠고 싸우는 ‘전투병단’으로 변모되기에 이르렀다.

‘조선문예회가’ ‘조선문인협회’로, 또 그것이 ‘국민총력조선연맹’ 산하의 ‘조선문인보국회’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명칭만큼이나 그들이 전쟁에 동원되는 양상과 그에 따른 통제는 점차 강화되어갔다. ‘조선문인보국회’의 활동이 강연회, 좌담회, 문학낭독회, 시국선전 작품공모, 가두선전, 보도정신대 등 직접적인 실천을 도출해낼 이론화 작업이나 시국선전 및 국책협력에 치우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란 실질적인 문학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근대 문화의 정수를 세례 받은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이 마침내 ‘강연부대’, ‘문화부대’로 호명된 순간, 이들의 문학적 도정(道程)은 일제가 부여한 대의(good cause)에 봉공하는

30) 「聯盟機構를 強化」, 《매일신보》, 1943년 4월 13일자.; 총무부장에 박영희, 상무이사에 김동환, 유진오, 유치진, 최재서, 이사에 이광수, 주요한이 선임되었다. 「各種親日文化團體를 統合하여 半島文人報國會 結成」, 《매일신보》, 1943년 4월 17일자.; 「朝鮮文人報國會의 總務部長에 朴英熙」, 《매일신보》, 1943년 4월 17일자.

31) 「半島文學者 總蹶起大會」, 《국민문학》, 1944년 7월호, 68-69쪽.

32) 辛島驍, 「決戰文學의 確立: 戰ひつゝある意識」, 《국민문학》, 1943년 6월호, 41쪽.

일 외에 남은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의 확인뿐이었다. 그렇게 확인된 사실의 자리에 놓인 것이 이른바 ‘국민문학’인 것이다. 실제로 《인문평론》과 《문장》의 발전적 해소 및 통합이라는 외피를 쓴 《국민문학》에 ‘문학’이 없다는 사실은 이를 잘 대변한다.

‘국민문학’이 ‘문단신체제운동’에 호응하여 “이 기회에 잡지를 통제함으로써 조선문단의 혁신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의도”³³⁾하에 고안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문학》 편집요강³⁴⁾만 보아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때 ‘국민문학’은 조선 민족을 일본 국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계몽)과 저널리즘이 결합된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 따라서 ‘국민문학’이 말하는 것은 ‘문학’이 아니라 일본 국민 그 자체의 생활이며, 이것을 일상의 세계에까지 연장·침투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문학’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결국 조선인의 민족적·신분적 소외는 그대로 둔 채 (일본) 국민적 해방만을 지향하는 “국민문학은 특정한 문학 양식과 장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서의 문학의 존재형태”³⁵⁾를 가리키는 역사적 범주로서, 그것은 실현을 지향해야만 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완전한 시민사회가 성립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실현 또한 성공을 가늠하기에는 곤란한 것이었다.³⁶⁾

IV.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의 화법: 은폐된 갈등과 모순

T. E. 흠으로 대표되는 주지주의로 조선 비평계의 중앙에 등장했던 최재서에게 결정적인 방향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파리 함락³⁷⁾과 징병제

33) 최재서, 「朝鮮文壇の現段階」, 『轉換期の朝鮮文學』(人文社, 1943), 68쪽.

34) 일본 당국과 조선 문인들의 의견 불일치를 겪으며 마침내 절충하여 결정한 《국민문학》 편집요강은 ① 국체 개념의 명징, ② 국민의식의 양양, ③ 국민사기의 진흥, ④ 국책에의 협력, ⑤ 지도적 문화이론의 수립, ⑥ 내선문화의 융합, ⑦ 국민문화의 건설이었다. 최재서, 위의 책, 83-84쪽. 최재서가 명시한 이 요강의 내용은 같은 시기 일본 문단에서 논의된 ‘국민문학’ 체제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본의 ‘국민문학’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상적 통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선형적으로 지닌 ‘국체’에 대한 강조가 불필요했던 반면, 일본이 조선문단에 요구한 내용에는 식민 지배의 의도가 농후하다는 점 정도이다. 그러나 제시된 요강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당대의 비판은 양국에 공통적이었다.

35)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백지운 옮김, 「국민문학의 문제점」, 『일본과 아시아』(소명출판, 2004), 410쪽.

36) 다케우치 요시미, 위의 책, 411쪽.

실시(공포 1942.5.8, 실시 1943.8.1)였다. 최재서에게 파리 함락은 그동안 지녀왔던 문화주의의 패배 및 그것의 회복 불가능성을 목도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징병제 실시는, 만주사변으로 시작한 15년전쟁이 마침내 일본의 패배로 끝날 무렵 최종전으로 치달았던 만큼 '내선일체'로서의 황민화가 관념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의 궤도에 올라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38년 10월 중국의 우한(武漢)·산편(三鰲)이 함락되면서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과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당이 축출된 사실과, 1940년 6월 부르주아적 서구를 깨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대망한 독일 나치즘의 승리는 조선 독립의 불가능성과 서구적 근대의 몰락이라는 복수(複數)의 패배주의를 확산시켰다. 더불어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이러한 패배를 확정하는 데 결정타가 되기에 충분했다. 진퇴양난의 '역사적 사실'에 봉착한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은 방향전환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최재서에게 그것은 '문화주의'의 청산과 '국가주의'로의 전환이었다.

우리가 문화의 위기라는 말을 들어오기는 서력 1932, 3년경부터이다. 서력 1932, 3년이라면 소화(昭和) 6, 7년경—세계가 비상시에 들어오던 발단기다. [...] 우리가 구라파에서 건너오는 위기의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사태를 바로 인식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청천에 우레 소리를 들은 어린이 모양으로 그 정신적 효과를 받았을 뿐이지 그 객관적 실체에 대하여 자타가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는 구라파의 문화가 1·2의 독재자의 반달리즘에게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해석을 가졌을 뿐이었다. [...] 그러나 전후 10년 동안 몸소 겪어온 비상시 체험을 통하여 우리들은 별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위기를 의미하는 구라파어 「크라이시스」(Crisis)는 원래로 의학상 용어로서 병세의 진행 중 치사(致死)와 회복이 분기(分岐)되는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문화가 위기에 서 있다는 것은 그 문화의 병세가 절정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그 지점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을 경고하는 한 신호로서 볼 수가 있다.³⁷⁾

37) 파리 함락이 조선에 끼친 영향에 대해 최재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만주사변이 발발했을 때나 또 지나사변이 발발했을 때도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았던 조선문단이 소화 15년 6월 15일, 파리 몰락의 보도를 접하고 처음으로 아연실색하며 반성의 빛을 보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선문학의 특수성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흥미롭기도 하지 않은가. 파리 함락은 소위 근대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더욱 유럽문학의 유행을 좇아온 조선문학이 처음으로 새로운 사태에 눈을 떴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모더니즘 경향을 쫓던 시인들에게 심각한 반성의 기회를 주었고, 비평가들로 하여금 마침내 모색으로 광분케 했다.” 최재서, 『朝鮮文學의現段階』, 『轉換期の朝鮮文學』(人文社, 1943), 81-82쪽.

그 전환은, 의식적으로는 소화 15년(1940년, 인용자) 가을의 신체제 운동과 함께 시작되어 이듬해인 16년 봄에 단행된 문예잡지의 통합과 뒤이어 《국민문학》 발간에 의해 운동의 기초가 다져졌고, 16년 12월 8일 외람되어 선전대조(宣戰大詔)를 받들어 세계관적 자각을 깊이 하고, 마침내 17년 5월 징병제 실시가 발표됨으로써 확실하게 자신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³⁹⁾

과리 함락으로 상징되는 근대정신의 몰락은 최재서로 하여금 문화와 국가가 분리될 수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했고, 명실공이 조선인도 “진정한 황국신민이 되어 대동아공영의 지도민족이 될”⁴⁰⁾ 길을 열어준 징병제 실시에 따라 일본 국가주의에 기초한 국민문학 건설이라는 명쾌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했다. 조선인을 전장에 내몰 경우 그들의 총부리가 어디를 겨눌 것인가에 대한 배신의 우려가 불식될 수준에서만 가능한 ‘외지 민족’의 징병제는 의무교육과 호적법 적용, 궁극적으로는 참정권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내선일체’ 담론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했고, 그런 점에서 지식인 계층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⁴¹⁾ 그러나 이것은 곧 ‘신체제운동’의 일환으로 포섭되었고, 이로써 조선 문인들은 전쟁 병력자원 확보를 위한 사상보국의 “문학정신대”⁴²⁾를 자처할 수밖에 없었다.

징병제는 당시로부터 십여 년 이후에나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고도국 방국가체제’의 필요에 따라 애초의 기획보다 훨씬 성급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실천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취약점은 무수한 구호적 상투어의 반복으로 채워짐으로써 ‘말의 인플레이’를 낳았고, 문인들은 ‘국민문학’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만 횡행했을 뿐 결국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향했던 ‘국민문학’이 작품으로 남은 사례는 없었다.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보리와 병대(麥と兵隊)』를 위시한 전쟁의 실감을 묘사한 르포르타주식 전쟁문학을 ‘국민문학’으로 간주하면서 박영희의 『전선기행』과 임학수의 『전선시집』을 성급하게 내놓았던 해프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다 할 ‘국민문학’론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연설가’⁴³⁾나 ‘팔방미인’⁴⁴⁾만이 난무했을 뿐, ‘국민문학’을 이론화

38) 최재서, 「文學精神의 轉換」, 《인문평론》, 1941년 4월호, 5-8쪽.

39) 최재서, 「序」, 『轉換期の朝鮮文學』(人文社, 1943), 4쪽.

40) 최재서, 「徵兵制實施の文化史的意義」, 위의 책, 205쪽.

41)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국학자료원, 1997), 179-251쪽 참고.

42) 「文學挺身隊」, 《인문평론》, 1941년 1월호, 4쪽.

해야 한다는 조급성은 일본과 조선, 그리고 만주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어쨌든 작품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가. 거기 관해서는 아직 아무도 분명치 못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어쨌든 먼저 말한 문학에서 일본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알고 있다. 더듬어서 찾는 목표가 우선 국민문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해석해도 나의 과언이 아니리라. 그 증거로는 이것이 국민문학인가 하고 생각될 만한 작품은 아직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싹트는 것조차 보하지 않는다. 하물며 국민문학이 원리를 구명하고 그것을 수립하려는 문장이야 누구라 쓸까부냐. 일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近者は 일부 비평가들 사이에서 급년도의 국민문학의 결작으로서 무엇을 들어달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 회답을 참고로 하여 『국민문학결작집』이란 단행본을 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 국민문학이라 할 만한 작품이 대체 최근의 문학에 있겠는가. 그것조차 의심스러운데 그 중의 결작을 들라고 함은 우습다.⁴³⁾

이러한 사정은 ‘국민문학’의 개념 및 방법론이 먼저 존재하고 그에 따라 ‘국민문학’적 글쓰기가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문학’이 요청되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그것의 개념 규정 및 방법론이 서둘러 구성되어 야만 했던 전도된 순서를 보여준다. ‘국민문학 작가들’의 태도 및 작품 중에서도 규범이 될 만한 것이 전무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재서가 ‘국민문학 작가’로 규정한 사람은 신진 혁신 작가로서의 이석훈, 정인택, 중견 대표로서의 유진오, 이태준, 중견 리얼리즘 작가인 이무영, 한철야, 김남천, 반도문단의 내지인 작가로서의 다나카 히데미츠(田中英光), 미야자키 세타로(宮崎清太郎), 구보타 노부오(久保田進男), 전도가 촉망되는 언문문단의 신인 조용만, 정비석, 오영진, 함세덕, 오영진이었다.⁴⁶⁾ 그러나 이석훈의 「靜かな嵐」은 “혁신의 사라·브렛드”⁴⁷⁾로 평가 받을 정도로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이지만 “애써 조선 문화인의 혁신이라는 테마를 다루면서”⁴⁸⁾도 “한결같이 자신의 사상적 고민을 끌어안고 있”고, 정인택의 작품은 흥미와 시국적 모럴이 조화를 이루기는 했으나 ‘잔재주의 기예’로 말미암아 “주간신문소설과 같은 경박함”⁴⁹⁾이 느껴지기

43) 최재서, 「評論界의 諸問題」, 《인문평론》, 1939년 12월호, 47쪽.

44) 「求理知喞」, 《인문평론》, 1940년 7월호, 34쪽.

45) 神山生, 「國民文學은 무엇인가(上)」, 《만선일보》, 1941년 3월 8일자.

46) 최재서, 「國民文學의 作家たち」, 『轉換期の朝鮮文學』(人文社, 1943), 217-252쪽.

47) 최재서, 위의 글, 218쪽. ‘사라·브렛드’는 영어 ‘thoroughbred(우수한, 제1급의)’의 의미. 당시 이석훈의 「靜かな嵐」과 정인택의 「清涼里界限」은 우수한 ‘국민문학’으로 평가 받고 있었다. 「座談會: 軍人と作家, 徵兵の感激を語る」, 《국민문학》, 1942년 7월호, 50쪽 참고.

48) 최재서, 「國民文學의 作家たち」, 『轉換期の朝鮮文學』(人文社, 1943), 219쪽.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 최재서의 평가이다. 유진오의 「南谷先生」과 이태준의 「石橋」는 전근대적인 것을 새롭게 평가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윤리와 교훈을 얻고자 한 반성과 복고라는 측면에서 ‘국민문학’의 한 방향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자가 동양적 성격의 탐구 속으로 도피하려 하고, 후자가 전통의 존중에 있어 자칫 시세에 등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품게 하는 것”⁵⁰⁾이 수법의 결함으로 지적되었다.

여기서 최재서가 특별히 관심을 피력한 쪽은 리얼리즘 작가들의 작품이었는데, 그는 과거 견실한 리얼리즘을 지향했던 작가들이 시도한 ‘국민문학’적 글쓰기에 대해 그들의 내밀한 심경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며 그들의 작품을 진지하게 분석해낸다. “작가의 머릿속에 리얼리즘(그 대부분은 쇄말주의)과 시국인식이 나란히 사이좋게 있는 진묘한 풍경”⁵¹⁾이 엿보이는 이무영, 겉으로는 ‘내선일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작가 개인의 짝사랑의 추억을 그리는 등 “일부러 시국적 문제를 벗어나 예시롭게 쓰려고”⁵²⁾ 한 한설야의 「血」과 「影」, “추상과 관념과 합리주의 속에서 청춘을 다 태워버린 자가 일과 가정과 아이에게서 생명에 눈”⁵³⁾ 뜨는 자각을 그린 김남천의 「등불」과 「或る朝」 등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최재서는 특별히 김남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피력하는데, 왜냐하면 김남천은 “리얼리스트면서 논쟁가고 자신과 사회에 대해 준열하기를 그치지 않는 성실한 작가”⁵⁴⁾로서, “그는 기분이 나쁘면 모래를 발로 차듯 문학을 떠나는 그런 부박한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재서는 김남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수기들에 대해, “작품 자체보다도 작품을 만들어낸 작자의 경력이나 생활이나 성격 등에 보다 많은 흥미”⁵⁵⁾를 느낀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최재서는 과거 리얼리즘 작가들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이나 ‘국민문학’ 글쓰기의 실천적 면모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침묵해버린다.

“기분이 안 나서 글을 못 쓰겠다는 문인이 아직도 수두룩한 조선문단에

49) 최재서, 위의 글, 223쪽.

50) 최재서, 위의 글, 228쪽.

51) 최재서, 위의 글, 231쪽.

52) 최재서, 위의 글, 234쪽.

53) 최재서, 위의 글, 237쪽.

54) 최재서, 위의 글, 235쪽.

55) 최재서, 위의 글, 236쪽.

있어서”⁵⁶⁾ “왕년의 휴머니즘에 지성, 교양, 전통 등등의 논의가 분분하던 때에 비하면 요새야말로 완전한 침묵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⁵⁷⁾ 라는 불만은 ‘문단불평분자’⁵⁸⁾라는 말의 유행을 낳았고, 여기서 당시 조선문단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거니와 이러한 정세에 따라 식민지 조선 문인들의 ‘국민문학’은 시대에 대한 ‘완전한 침묵’이 빚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선 문인들에게 ‘국민문학’은 근대적 문학 관념이 붕괴되어 나타난 것이지,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서구의 붕괴를 목도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문학이 쇠퇴한 현상으로서의 ‘국민문학’은, 따라서 그들에게 적극적인 문학운동이 될 수 없었다. 최재서는 이런 세대에 직면한 각각의 작가들이 어떻게 운신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국민문학’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면서, 과거 준열한 리얼리스트였던 김남천의 나약한 심경의 토로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당시의 시국에 대해 조선 문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김종환의 흥미로운 언급을 인용해둔다.

쓸 수 없을 것 같지도 않은데 쓰지 않는 사람으로 유진오도 있다. 아마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소설 같은 것을 쓰는 것보다는 샐러리맨 쪽이 속 편하고 좋다고 아오키 히로시(青木洪: 홍중우, 인용자)도 말했다니까. 김사량의 야심작 장편 『태백산맥』은 그럭저럭 훌륭한 체면만은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 연맹상(聯盟賞)의 작가 牧洋(이석훈, 인용자)은 기행문 풍의 작품으로 정신의 착실한 정치학을 시도하려는 듯하나 노력과 양에 반비례해 재능의 빈곤이 눈에 띄었다. 노력으로 말하자면 조선예술상의 이무영도 용어 차원에서 필사적인 애처로움을 보이는 것 같다. 쓴다, 쓴다 하면서 쓰지 않는 조용만, 안 쓴다 안 쓴다 하면서 여전히 쓰고 있는 정인택,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미야자키 세타로(宮崎清太郎)도 너무 피로해 보인다. 정비석만큼은 피로하지 않은 것 같아 기뻐다. [...] 최재서의 역시 『전환기의 조선문학』에 대한 우리의 불만도 이러한 점에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통변적(通辯的) 발언에 대한 불신인 것이다.⁵⁹⁾

어떻게든 ‘국민문학’다운 작품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고, 쓰고 싶지 않지만 쓰는

56) 「求理知囑」, 《인문평론》, 1939년 10월호, 36쪽.

57) 「求理知囑」, 《인문평론》, 1940년 5월호, 40쪽.

58) 「求理知囑」, 《인문평론》, 1940년 11월호, 161쪽.

59) 月田茂(김종환), 「文化の一年: 一文化人の眼に映つたもの」, 《신시대》, 1943년 12월호, 46-47쪽.

사람과 싸야 하는 사람을 양산해내는 모순을 초래했다는 것이 김중환의 판단이다. 이러한 분류에는 최재서도 포함되는데, 김중환이 “통변적 발언”에서 오는 불신을 운운한 것은 최재서의 이중적 혹은 애매한 태도를 지칭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국민문학》 편집자의 태도로는 자격미달이다. 조선문단의 공기가 이러할 때, ‘신체제’하의 지식인 계급이 ‘직역 봉공(職域奉公)’을 실현해야 한다면 논리의 비약, 신념의 단행이 요구된다. 김오성은 이것을 “원리의 전환”⁶⁰⁾으로 명명했던바, 이때 논리를 초월한 신념의 비약이란 역사적 전환기가 강력한 필연성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굴절된 신념의 비약이란 마지막까지 내 안에 고착되어 있는 어떤 것을 스스로 극복하는 일이며, 그럴 때만이 그 믿음은 ‘숭고한 대상’으로 고양될 수 있다. 최재서에게 그것은 “문학정신의 전환”⁶¹⁾으로 선언되었고, 그것의 “완만한 혹은 무자각적인 전환에다 악센트를 주고 템포를 올리고 또 모든 점을 명확하게 의식화시키는 역할을”⁶²⁾ 한 것은 바로 태평양전쟁이었다.

현대의 문화적 위기의 일반적 원형과 및 전환의 필연성은 이상과 같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인생관에 있어서의 합리주의 정신의 부적합, 사회관에 있어서의 실증주의적 설명의 불가능, 민주주의의 무력화, 세계 경제의 파탄, 개인주의 문학의 군색(窘塞) 등으로 나타나 있다. 요컨대 이 모든 근대적 기구가 생활 조건의 격변으로 말미암아 토대로부터 화해할 위기에 서고 있는 것이다. 문학에 있어서만 보더라도 개인이 인류적 입장에 서서 오로지 독창성만을 가지고 문화적 창조에 기여한다는 근대적 관념은 그 자체의 진위를 불문하고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 예측된다. 말하자면 제 민족의 문화적 선수가 모여서 그 창조적 능력을 경기할 올림픽아의 마당은 폐쇄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절실한 민족의 생존과 국민의 영위에 바쳐져야 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⁶³⁾

이렇게 볼 때 조선 문인들에게는 일본 국가(국체)로의 전환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론적 기반이었던 서구적 근대의 가치관으로부터의 전환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조선인’이라는 민족의 위상 문제가 아니라 ‘문인’이라는 인식론적 존재의 위상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중의 ‘전환’은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을 ‘친일’로 일괄

60) 김오성, 「原理의 轉換」, 《인문평론》, 1941년 2월호, 6쪽.

61) 최재서, 「文學精神의 轉換」, 《인문평론》, 1941년 4월호, 5쪽.

62) 최재서, 위의 글, 8쪽.

63) 최재서, 위의 글, 9쪽.

규정할 수 없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물론 친일이나 아니나의 물음과는 다른 층위의 문제이다.

조선문학의 정신 및 원리의 전환이라는 과제에 호응하여 《국민문학》 창간호는 “조선문단의 혁신”을 권두언으로 내세우고 있다.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혁신의 봉화”는 마침내 ‘소화(昭和) 신체제운동’에서 정점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조선의 혁신은 “세계적 의미와 일본적 성격, 기타 반도 스스로가 재래의 협소한 문화권을 탈피하고 고도 일본문화권 내에 용해되어 재연성(再練成)을 시도해야만 하는 삼중의 의미”⁶⁴⁾로 파악된다. 요컨대 신체제하에서 조선의 혁신이란, 일본을 맹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의 일익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물질 토대 그 자체에 대한 주문인 것이다. 따라서 대동아공영권의 원심력과 구심력의 길항으로서의 일본에게 일체의 ‘조선적인 것’은 절대 부정되어야 할 것이었고, 선협적으로 조선적일 수밖에 없는 조선 문인들은 이 문제에 침예하게 대립했다.

V. ‘국민문학’의 보편성과 ‘조선적인 것’의 특수성

《국민문학》 창간을 전후해서 ‘내선’의 문인들은 ‘국민문학’의 실천적·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의했다. 이는 대동아공영권의 선전 및 계몽을 위한 전위로서의 ‘국민문학’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이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방법론의 결여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문제에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침예하게 대립했던 사항이 바로 언어 문제였다.

“반도에 남겨진 유일한 문예잡지”라는 《국민문학》의 위상에서 보면 “국어 문제에 부딪혀야만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예상된 일”⁶⁵⁾이었던 바, 그것은 대동아공영권으로 표상되는 전국(戰局)의 확대에서 적극적으로 제출된 사안이었다. 요컨대 전쟁과 연동된 식민지 경영 차원에서 일본어 보급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42년 5월 5일에 발표된 ‘국어보급운동요강’은 징병제 실시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국민문학》은 1942년 5, 6월 합병호부터 전면적인 ‘국어 잡지’로 전환되

64) 津田剛, 「革新の論理と方向: 世界, 日本, 半島の革新について」, 《국민문학》, 1941년 11월호, 20쪽.

65) 최재서, 「朝鮮文學의現段階」, 『轉換期の朝鮮文學』(人文社, 1943), 85쪽.

었다.⁶⁶⁾

총독부 학무국의 모리타 고로(森田梧郎)에 따르면, “국제문화협회에서 일본어의 해외 보급을 도모”했던 시기가 1기였다면, ‘국어대책협의회’에서 만주사변 이후 대륙 경영과 관련한 일본어 보급 문제가 거론된 것이 2기에 해당한다. 당시는 “화급을 다투는 정세였기 때문에” “일본어 진출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에 반해, 3기에 해당하는 현재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자이자 동아의 맹주로서 일본문화를 공영권 내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시기가 왔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러나 “국내 문제로서의 국어의 정리 통일과 공영권에 내놓는 일본어의 정리 통일 문제를 똑같이 처리해야 할 것인지”⁶⁷⁾조차 명확한 기준을 갖지 못한 채 순수 일본어를 식민지에 주입시킬 것을 강조하는 일본 측의 요구에 대해 최재서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것의 불가능성을 주장한다.

최재서: 이진 만주국 관리에게 들은 말인데, 만주국의 경우 순수 국어를 보급하려는 무리와 다소 순수함을 잃어도 좋으니 합리적인, 소위 문법책 한 권이면 족한 국어로 하자는 무리가 서로 논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 인용자): 그럼 에스페란토어와 똑같아지는 거죠.

최재서: 그에 대해 국학자가 노발대발하면서, 어려운 것이 일본어인데 그걸 없애면 일본정신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언어가 바뀌면 문화가 바뀐다는 점을 숙고해야만 합니다. 그리스 문화는 식민지에서 언어가 변질되면서 매우 퇴폐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소위 코이네(koine)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언어의 변질은 언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영향을 주고, 문화가 변질되면 퇴폐적인 문화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것이 본토로 역수입됩니다. 민중은 엄격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식민지식 변종문화가 역수입되는 것이지요.⁶⁸⁾

거듭되는 ‘교육령’의 개정을 통해 ‘일본정신’으로 표상되는 순수 일본어 보급만 강조하는 일본 측의 의견에 대해, 아무리 순수한 일본어를 식민지에 보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염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며 더 나아가 그것은 변질된 형태로 본국에 역수입될 것이라는 주장은 최재서의 통찰력

66) 여기서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했던 사정을 가늠할 수 있다.

67) 「座談會：大東亞文化圈の構想」, 《국민문학》, 1942년 2월호, 47-49쪽.

68) 위의 글, 50쪽.

이 발휘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코이네(koine)란 기원전 3, 4세기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애틱 그리스어(Attic Greek)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중해 연안과 중동지역까지 통용되었던 그리스 공통어를 가리킨다. 세계 최대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는 강한 헬레니즘 문화의 전통하에 있었지만, 군사적·정치적 통일을 초월하여 문화적·정신적 통일을 지향한 세계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 언어의 통일을 추진함으로써 일상적인 통속어를 제국의 공용어로 삼았고, 마침내 그것은 신약성서의 언어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공통어 또는 공용어를 의미하는 코이네를 최재서가 변질된 문화, 퇴폐적인 문화의 사례로 거론한 것은 그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제국의 입법이라는 권위가 동화를 가능케 하는 사태에 대한 아이러니의 환유라 할 수 있다. 타고르(Tagore)의 작품은 벵골어로 쓰였던 초기의 시가 우수했다는 그의 평가나 토착어, 지방어로 제작된 버나쿨러(vermacular) 문학이 여전히 동아공영권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⁶⁹⁾을 환기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제국 일본의 식민지가 구사하는 언어가 에스페란토어화될 것을 우려하는 일본 측의 조급성에 대해 지배자의 언어 혹은 기득권층의 표준어에 대립하는 일상적·습관적인 민중의 양식에서 구성된 토착어, 지방어의 위상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보편언어를 지향하는 제국은 제국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들을 언어로 간주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양하고 무정형으로 존재하는 지방문학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고 그것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는 최재서의 소극적인 대사에는 그가 직접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어 보급 문제는 조선문학의 위상 전환을 암시하면서 나아가 조선 문인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침예한 갈등을 내포하는 사안이었다. '내선' 문인들이 동석한 '국민문학 좌담회'는 공동체적 목표가 무색할 만큼 날카로운 대립이 눈에 띈다. 가장 주목되는 장면은 조선 문인들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는 일본 측의 의견에 대해 '조선적인 것'의 해소 불가능성과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위상을 주장하는

69) 위의 글, 54쪽.

조선 측의 대립이다. 여기에는 급진적인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장혁주나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김사량 등도 있었지만, 최재서는 일본문학의 일환이면서도 ‘조선적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선문학을 제안한다. 즉, 최재서는 기존의 조선문학의 개념과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조선문학으로도 일본문학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동아시아 문학의 범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언어, 집필자, 독자, 주제가 모두 달라진 상황이라면 조선문학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조선은 조선이게끔 하는 선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재서는 “조선문학의 멸망을 외치는 절망론에 대해서나 조선문학을 말살하려는 획일론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면서 국민국가의 상상적 지리학을 넘어서는 모험을 강행한다.

조선문학은 규슈문학이나 도호쿠문학 내지는 대만문학 등이 갖고 있는 지방적 특이성 이상의 것을 갖고 있을 터이다. 그것은 풍토적으로, 기질적으로, 이에 따라 사고 형식상으로부터도 내지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학 전통을 배후에 지니고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도 내지와는 다른 문제와 요구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장래에도 조선문학은 이들 현실과 생활 감정을 그 소재로 하게 될 것이므로, 내지에서 생산되는 문학과는 상당히 다른 문학이 될 것이다. 굳이 예를 찾는다면, 그것은 英吉利문학(영국문학, 인용자)에 있어서 蘇格蘭문학(스코틀랜드문학, 인용자)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것은 영문학의 한 부분이지만 蘇格蘭적 성격을 견지하여 다수의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어 문제가 떠들썩할 무렵 자주 조선문학을 愛蘭문학(아일랜드문학, 인용자)에 비교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愛蘭문학은 과연 영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정신은 처음부터 반영국적이며 英吉利로부터 이탈이 그 목표였던 것이다.⁷⁰⁾

“특수성이나 로컬컬러, 독자성이라는” 것이 “일본문학의 일익으로서가 아니라” “조선에만 틀어박혀 있”을 뿐 그 안에서 “좀처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라는 경성일보 학예부장 데라다 에이(寺田瑛)의 불만과, “시대의 감정을 획득하”는 “문예가 자신의 자기 건설 문제”⁷¹⁾를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驪)의 발언에서 보이는 분위기는 당시 조선 측과 일본 측이 공유하는 공기였다. 학병 권유를 선전하던 이광수조차 “조선이란 점에 너무 집착하”는 조선인들의 견고한 자기성이 학병 홍보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서도, “국어로 소설을 쓰고자 하는 것 자체가

70) 최재서, 「朝鮮文學の現段階」, 『轉換期の朝鮮文學』(人文社, 1943), 88-89쪽.

71) 「座談會: 朝鮮文壇の再出發を語る」, 《국민문학》, 1941년 11월호, 77-79쪽.

무모하다.”⁷²⁾는 생각을 토로한 바 있을 정도였다. 처녀작부터가 일본어 소설이었고 그 후에도 일본어 창작에 적극적이었던 이광수가 “외국(인)이 그 흉내 내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금년 들어 저도 국어 작품을 네댓 편 썼지만 이런 것은 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⁷³⁾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 시기 ‘국민문학과 지방문학’의 위상 및 범주에 대해 지속적인 이론화를 시도한 것은 최재서가 유일하다. 최재서는 이것을 “장래의 일본문화를 고려하면서 확일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많은, 즉 변화하는 문화를 포용한 어떤 통일원리와 일본정신으로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여 일본문화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문제”⁷⁴⁾라고 정리한 뒤, “종래 언문으로 쓰던 자가 국어로 쓴다는 것만으로는 큰 의의가 없다. [...] 양자로 온 자가 이상한 개성을 갖고 들어와서는 곤란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그저 “속론(俗論)”⁷⁵⁾으로 치부해버린다. 당시 조선문단에 횡행하던 ‘로컬컬러’론에 대해서도 최재서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조선문학의 ‘독창성’이다.

저는 로컬컬러란 말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특수성이란 말도 그다지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오히려 조선문학의 독창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⁷⁶⁾

향토색 또는 지방색으로 번역되는 ‘로컬컬러’나 일반적·보편적인 것에 대립되는 ‘특수성’에 대해 최재서가 굳이 이들을 구별하면서 ‘독창성’을 강조한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 독창성이란 모방이나 파생이 아니라 어떤 유기적인 원리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그 자체에 기원을 둔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서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가 형성되며, 그것은 유례가 없다는 창조적 특징으로 말미암

72) 「학병 권유차 도쿄에 간 최남선·이광수의 ‘도쿄대담(東京對談)」, 《조선화보》, 1944년 1월호,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424-425쪽의 부록에서 인용.

73) 김윤식, 위의 책, 426쪽에서 인용. 최재서가 식민지의 오염된 일본어가 식민 본국에 역수입될 것이라는 아이러니를 제출했던 데 대해, 마해송은 반대의 아이러니를 토로한다. 즉, 일본 작가는 사투리로 일시 도망칠 수 있지만 조선인은 정확한 일본어 외에는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표준어가 조선인 작가에 의해 일본에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74) 「座談會: 朝鮮文壇の再出發を語る」, 《국민문학》, 1941년 11월호, 87쪽.

75) 최재서, 「朝鮮文學の現段階」, 『轉換期の朝鮮文學』(人文社, 1943), 94쪽.

76) 「座談會: 朝鮮文壇の再出發を語る」, 《국민문학》, 1941년 11월호, 77쪽.

아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조선을 조선이게끔 하는 선행성이란 조선이라는 하나의 유기적 원리에 의해 형성된 오리지널리티를 획득한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아무리 일본어로 창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 최재서가 말하는 ‘조선문학 독창성’론의 근거이다. 따라서 최재서는 “조선의 지방색을 땀으로써 조선문학의 독창성이 만들어”⁷⁷⁾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제시한다. 이것은 시종일관 ‘일본정신’으로 무장한 작가의식과 일본어 창작만을 요구하는 지배자의 언설에 대해 언어는 양보하더라도 작가의 선행적 의식은 버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며, 영국문학과 스코틀랜드문학의 관계를 비유로 가져온 것은 이 때문이다.

모순은 ‘문체’를 구성하고 그것의 해결을 독촉한다.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의 ‘국민의 정신적 혈액’으로서의 ‘국어’라는 사상이 식민지 조선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냈던 것은 조선과 일본이 서로의 입장에서 ‘국어’를 이야기할 때 발생하는 ‘국어’의 정치성을 중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 측에서 작가의식과 일본어를 강조하는 전략은 상실(조선어)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부인하는 한편 의식(문인)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정체성을 구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제’와 함께 모든 이념적 가치를 배제한 후의 진공상태를 메운 것은 ‘일본 국가’가 아닌 ‘일본 정신’이었다.

“조선문학의 ‘스코틀랜드문학’화는 큰 개에게 물린 강아지가 짖는 소리보다 못한 자위에 지나지 않는다.”⁷⁸⁾는 세간의 평가와는 별도로, 이것은 일본 측의 정언명령에 대해 최재서가 최후까지 양보할 수 없었던 ‘조선적인 것의 특수성’ 또는 선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자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문학에 조선문학의 운명을 거는 것에 의해 생존 가능성을 배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좌담회에서 좀처럼 말을 아끼던 최재서가 “당국이 명령하고 문인은 그것에 복종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진정한 문예동원이 불가능하다.”, “일일이 호령에 의해 문학이 움직이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⁷⁹⁾고 일침을 가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77) 최재서, 『偶感錄』, 『轉換期の朝鮮文學』(人文社, 1943), 191쪽.

78) 川村湊, 「朝鮮近代批評の成立と蹉跎: 崔載瑞を中心に」, 藤井省三(編), 『岩波講座: 「帝國」日本の學知5, 東アジアの文學・言語空間』(岩波書店, 2006), 286쪽.

79) 「座談會: 文藝動員を語る」, 《국민문학》, 1942년 1월호, 123쪽.

VI. 파국의 시대와 새로운 ‘역사의 천사’

주지하다시피 최재서는 1944년 1월 1일 이시다 고조(石田耕造)로 창씨개명을 함과 동시에 ‘황국신민’으로의 전향을 선언한다. 그의 완전한 전향선언서라 할 수 있는 「まつろふ文學」은 일본적 사상의 정수이자 복고사상의 총론이라 일컬어지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나오비노미타마(直隸靈)』(1771)의 일절로 시작된다. 이 인용문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글은 최재서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인상을 준다.

문제는 언제나 간단명료했다. - 그대는 일본인으로 될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은 다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일으킨다.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다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일으킨다.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이미 지성적인 이해나 이론적 조작만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최후의 장벽이었다. 그렇기는 하나 이 장벽을 돌파하지 않는 한 팔괘일우도 내선일체도 대동아공영권의 확립도 세계 신질서의 건설도 통틀어 대동아전쟁의 의의를 알지 못하게 된다. 조국 관념의 파악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지 않는 한 구체적·현실적이라 할 수 없다.

여기서 나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자 한다. 나는 작년(1943년, 인용자) 연말 무렵부터 갖가지 자기를 처리하기에 깊이 결의하고 정월 첫날(1944.1.1, 인용자)에는 그 수속으로 창씨를 했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 그것을 받들어 고하기 위해 조선신궁에 참배했다. 신궁 앞에 깊이깊이 머리를 드리우는 순간, 나는 맑고 맑은 대기 속에 호흡하자 모든 의문에서 해방된 느낌이었다. - 일본인이란 천황에 사봉하는 국민인 것이다.⁸⁰⁾

이 글을 최재서의 이전의 행적과 완전히 단절된 전향선언서로 독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민문학’ 이론화를 시도하고 자신의 선협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일련의 행위들과 연속해서 본다면 모종의 단절이 느껴진다. 왜 이 글이 1944년 4월에 제출되었고, 1944년 새해를 맞이하여 뒤늦은 창씨개명을 단행하면서—창씨개명은 1939년 11월에 개시되었다.—‘황국신민’을 선언하게 되었는지는 당시 일본의 패색의 기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연합함대 사령관이 전사하고(1943. 4.18), 아투 섬(Attu Island) 전투에서 일본군이 전멸했으며(1943.5.12-30),

80) 「まつろふ文學」, 《국민문학》, 1944년 4월호, 5쪽.

이탈리아가 연합군에 항복(1943.9)하는 등의 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943년 10월 2일 고등학교, 대학, 전문학교 재학생의 징병 유예가 완전히 정지되면서 1944년 1월 20일에 ‘학도특별지원병제’가 실시되었다는 저간의 사정은 최재서가 왜 이 시기에 신앙 고백에 가까운 전향을 선언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다.

최재서는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후의 장벽”에 직면했을 때 그 과제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정언명령을 따라 모종의 쾌락을 심어놓음으로써 자신의 법칙을 부과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통 속의 쾌락’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은 그 향유의 장애물이며, 이때 주체는 대의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하여 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다 높은 단계의 도덕적 완성이라는 무한 전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행동을 위한 ‘정념적 동기’로 기능하며, 그로 인해 상상력의 모든 한계를 넘어 끝없이 고문당하지만 계속 살아서 고통을 겪으며 더욱 더 신성해지기까지 한다.⁸¹⁾ 이때 천황은 자신이 ‘사봉’해야 하는 환상, 즉 절대타자로서 신앙의 구현체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병든 상상력 혹은 경박한 공상이 아니라 매우 특별하면서도 일반적인 어떤 구조적 문제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문제에서 보자면 이데올로기의 압력에 반응하는 차원은 대단히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친일이나 아니냐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최재서를 친일 혐의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2009년 11월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이 방대한 실증적 자료를 규합하고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소중한 결실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친일’이라는 개념이 환기하는 강력한 효과로 인해 역사를 보지 않고 역사의 견해만 보고 역사를 보고 있다고 믿는 태도를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친일’이라는 예단이 선행함으로써 다양한 스펙트럼의 존재를 망각케 할 위험이 있다. 요컨대 ‘친일문학’이라는 의장만을 신봉하는 한, 여기에는 크건 작건

81) 알렌카 주판치치 저, 이성민 옮김, 『실제의 윤리』(도서출판b, 2004), 128-131쪽 참고.

죽은 세대의 전통이 악몽처럼 살아 있는 자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문학운동'은 적극적인 문학운동이 아니라 비평정신이 상실되고 그 원리가 쇠약해진 현상으로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학적 관념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데 최재서의 고민이 있었다. 그의 고뇌가 보잘것없음에 비해 문자(친일)는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20세기를 이데올로기의 지배가 낳은 전체주의의 시대라고 정의했던바,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지배의 강령적 도구로 이용된 사상적 형해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초래한 사태는 가치체계의 영향으로부터 탈각된 이른바 사상의 해체상태이다. 이러한 기반에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사상의 상대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단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이란, 비극적인 것은 무엇보다 교훈적이라는 점이다.

해방 이후 최재서는 셰익스피어 연구에 집중했던 바, 조금 더 살았다면 그가 계획하던 밀턴 연구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⁸²⁾

82) 최재서, 「文學의 海圖를 그리며」, 『인상과 사색』(연세대학교출판부, 1977. 발표는 1959년 12월 7일).

참 고 문 헌

-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지, 유은경 옮김, 「역사와 문학」. 『고바야시 히데오
평론집: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소화, 2003.
-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김준환, 「1930년대 한국에서의 동시대 영국시 수용」. 『영어영문학』 제53권 3호,
2007, 443-476쪽.
-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지, 서광덕·백지운 옮김, 「국민문학의 문제점」. 『일본과
아시아』, 서울: 소명출판, 2004.
- 류보선, 「친일문학론의 계몽적 담론 구조」. 한국근대문학회 편, 『한국문학과 계몽담
론』, 서울: 소명출판, 1999.
- 알렌카 주판치치 지, 이성민 옮김,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B, 2004.
- 유진오, 『짧은 날의 자화상』. 서울: 박영문고, 1976.
-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서울: 다락원, 1980.
- 이혜진, 「전쟁과 문학: 총력전하의 ‘전쟁문학’ 작법(作法)」.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편,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5집, 2008. 4, 299-322쪽.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97.
- 최재서, 『인상과 사색』.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7.
-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서울: 소명출판, 2005.
- 高木市之助, 『國文學十五年』. 岩波書店, 1967.
- 佐藤清, 『佐藤清全集(3)』. 詩聲社, 1964.
- 崔載瑞,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 川村湊, 「朝鮮近代批評の成立と蹉跌: 崔載瑞を中心に」. 藤井省三(編), 『岩波講座:
「帝國」日本の學知5, 東アジアの文學・言語空間』, 岩波書店, 2006.

《京城帝大英文學會會報》

《國民文學》

《大阪毎日新聞》

《東亞日報》

《滿鮮日報》

《毎日新報》

《文章》

《新時代》

《人文評論》

《朝光》

《朝鮮》

《朝鮮日報》

《中央日報》

《總動員》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한국근대비평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했던 최재서의 학문적·실천적 행보를 통해 ‘신체제’ 시기에 이르러 그가 ‘국민문학’ 이론에까지 도달했던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해볼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 과정으로서 우선 경성제대 영문학과 시절, 영국 낭만주의 사조를 연구한 행적을 통해 당시 조선의 상황을 ‘일본의 아일랜드’로 치환함으로써 모종의 구원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파리 함락과 징병제 실시를 계기로 하여 문화주의에서 국가주의로 완전한 방향전환을 함으로써 ‘국민문학’ 이론가를 자처하지만 실제로 그가 이름 붙일 만한 문학정신은 전무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조선적인 것’의 선형성에 대해 일본 측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은폐된 갈등과 모순의 경로를 되짚어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친일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친일이라는 문자가 환기하는 강렬함에 떠밀려진 파국의 잔해들에 대해 되돌아보는 작업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0. 6. 21.

수정일 2010. 8. 5.

게재 확정일 2010. 8. 13.

주제어(keyword) 최재서(崔載瑞, Ch'oe Chae-sŏ), 국민문학(國民文學, national literature), 친일문학(親日文學, Pro-Japanese Literature), 경성제대(京城帝大, Kyŏngsŏng Imperial University), 좌담회(座談會, roundtable talk), new order, Koreanness